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4. 12. 29. Vol. 51

■ 농정이슈

쌀 관세율 513%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성 등

■ 정책브리핑

2015년 경제정책 방향

■ 연구지원

2014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 농정이슈

농정이슈 국내 언론 동향

□ 쌀 관세율 513%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성

- [WTO에 제시한 쌀 관세율 513%, 중국*과 비공개 협의**, 12.22.] 한국 쌀 관세율 513% “깜짝 놀랄 만큼 높다” 는 입장

※ 중국 쌀 수출(2013년 기준): 한국(32만 3,000톤) > 일본(3만 1,000톤) > 홍콩(2만 5,000톤)

※※ 미국과 비공개 협의(12.17.) 후 두 번째, 주요 쌀 수출국 가운데 태국, 호주 등은 아직 비공개 협의 요청하지 않은 상황

- (전망) 일본대만의 경우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 거친 점 고려해, 우리 측도 장기간 협의 불가피

- [쌀시장 개방(2015.1.1.~) 전 양곡관리법 개정* 법원 판결, 12.25.] 민변이 농식품부 상대로 쌀 관세율 관련 연구보고서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결과, 쌀시장 개방 전 국회가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법원 판단이 법적으로 기속력 없고, 쌀시장 개방 시한 얼마 남지 않아 법 개정 없이 시장 개방 가능성 커

※ (민변) 양곡관리법상의 ‘쌀수입허가제’ 폐지 ↔ (정부) 법 개정 없이 쌀시장 개방 가능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판결문, 12.2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의 쌀 관세화를 관련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쌀에 대한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수입허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명시

자료 : 서울신문연합뉴스-헤럴드경제(2014.12.23.) / 경향신문머니투데이(2014.12.26.)

□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 [한·뉴질랜드 FTA 가서명, 12.22, 뉴질랜드] 양측 수석대표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데이비드 위커 외교통상부 차관보 가서명, 2015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추진

※ (뉴질랜드 측) 對한국 수입의 92%(수입액 기준) 즉시, 96.5% 3년 내, 97.6% 5년 내, 100% 7년 내 관세철폐

※ (한국 측) 對뉴질랜드 수입의 48.3%(수입액 기준) 즉시, 61.8% 5년 내, 78.3% 10년 내, 96.4% 15년 내 관세철폐

- (한국 측 시장개방)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 고려, 다양한 예외적 수단(양허제외, 농산물 셰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 부분관세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

㉔ 농정이슈

- ※ (양허제외 품목) 쌀·천연꿀·과실(사과·배·감 등)·고추·마늘·녹각·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
- ※ (쇠고기)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적 영향 최소화
- ※ (탈전지분유·치즈·버터 등 낙농품 및 혼합) 과거 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부여

자료 : YTN(2014.12.22.) / 세계일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연합뉴스이테일라·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2014.12.23.) / 농민신문(2014.12.24.)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한뉴질랜드 FTA 가서명」(2014.12.22.)

□ 정부, 2015년 다자간 FTA 협상에 역량 집중

- [정부, 2015년 FTA 통한 경제영토 확장] 한·중 FTA를 비롯해 주요국과의 양자간 FTA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메가 FTA’로 불리는 **다자간 협상에 역량 집중**할 방침
- **△한·중·일 FTA, RCEP 2015년 중 타결 목표, △TPP 협상**에는 현재 참여하지 않지만,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조기 합류 방안 추진 중**

자료 : 세계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투데이(2014.12.22.)

□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체결

- [농식품부,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체결] 한·EU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절차 마무리, 양측 간 준비절차* 거쳐 **2015.2.1.부터 협정 발효**, 한·미 동등성 인정 협정(2014.7.1.발효)과 유사한 수준
- ※ 세부이행 관련 Q&A 작성, 행정적인 내부절차 등
- **(주요 내용)** △양측 자국의 인증만 받아도 상대방에서도 ‘유기’ 표시하여 판매, △협정 유효기간은 3년, 필요 시 연장, △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가공식품으로 한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 금지 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 금지, 잔류검사후속조치는 각 수입국 규정 적용

자료 :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4.12.20.) / 농민신문·농촌여성신문(2014.12.22.) / 한국농업신문(2014.12.2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2014.12.19.)

□ 농식품부, 한국 농식품 중국시장 진출 길라잡이 발간

- [「한·중 FTA 시대, 한국 농식품 중국시장 진출 길라잡이(북방권역* 1~3선 도시를 중심으로)」 발간, 12.23.] 한국 농식품의 중국 진출 전략 제시하는 마케팅 보고서**

㉔ 농정이슈

- ※ 친링산맥-화이허선(Qinling Mountains-Huaihe River Line)의 북쪽에 위치, 중국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 전체 인구의 43%가 거주하는 지역, 주요 도시로는 베이징·시안·선양·하얼빈 등 해당

- ※※ 한·중 FTA 타결에 대비해 2014.7월부터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중국 연구기관인 ‘북경한중연지순유한공사(北京韓中研諮詢有限公司)’를 통해 중국의 농식품 소비·유통시장 등을 심층조사 작성

- **(주요 내용) △중국 식품시장 트렌드**(양보다 질, 수입산이 좋아, 인터넷 구입, 어린이 전용식품시장 확대), **△한국 농식품의 중국 북방권역 진출 위한 마케팅 전략**(대도시 거주 30대 이하 연소득 15만 위안 이상 여성이 주 소비층, 포장지 색상·서체·재질·크기 등 현지화, 대형유통매장 이외 편의점·수입식품 전문점 등 유통채널 다양화, 유기농·기능성 식품 시장 성장, 작고 귀여운 포장의 간식거리 인기)

자료 : news1·NEWSis·동아일보·연합뉴스(2014.12.23.) / 농수축산신문(2014.12.2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한국 농식품 중국시장 진출 길라잡이 발간 - 북방권역 1~3선 도시를 중심으로 진출 단계별 마케팅 전략 제시 -」(2014.12.23.)

□ 전통식품 정책고객 수요조사 결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통식품 수요조사* 결과 발표, 12.24.] 품질인증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와 인지도, 생산업체의 전통식품 인증효과와 생산·판매 시 애로 등 요구사항 설문 조사 실시, 조사결과는 2015년도 전통식품 사업계획에 반영·활용
- ※ 조사대상: (소비자) 서울시 거주시민 500명, (생산업체) 83개
- ※※ 국산 원재료로 예로부터 전승된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식품으로 정부가 품질을 보증(수입산 원재료 사용 비인증품에 비해 고가)
- **(조사결과)** △전통식품 구입한 경험 66.7%*, △구입의향 77%(3.85점/5점 만점 기준), △소비자의 전통식품 인지도 76%(3.8점), △생산 업체의 78%(3.9점)는 인증 표시가 매출 향상에 긍정적이나, 업체의 마케팅 역량부족으로 활용에 한계
- ※ 고추장, 된장 등 장류(56.2%, 복수응답) > 두부, 고춧가루 등 신선식품류(52%) > 한과류(48.4%) > 김치류(44.0%) > 차류(43.0%) 순

자료 : NEWSis·아주경제·연합뉴스·이테일라·파이낸셜투데이(2014.12.24.)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전통식품 정책고객 수요조사 결과 발표 - 소비자, 생산자 요구 조사, 2015년 전통식품 6차 산업화 사업에 반영 -」(2014.12.24.)

□ 산지 출하자-중도매인 간 정가·수의매매 전자 예약거래시스템 구축

- [농식품부, ‘정가·수의매매* 전자 예약거래시스템**’ 구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2013년 9.9% → 2016년 20%) 통한 농산물 거래단위 규모화와 가격 변동성 완화 위해 시범운영(12.22.), 향후 시스템 개선·보완 이후 모바일시스템 운영(2015.3.)

㉔ 농정이슈

※ 불특정 다수 간 무작위로 거래가 일어나는 경매와 달리 특정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수의매매) 가격을 결정해 놓고 거래대상 결정(정가매매), 농안법 개정(2012.2) 통하여 정상 거래 원칙이 됨.

※ ※ IT를 활용해 산지의 출하정보소비지 구매계획법인 거래계획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공유해 경매사가 지역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더욱 쉽게 산지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자료 : news1-NEWSis(2014.12.22.) / 농민신문(2014.12.24.) / 농수축산신문(2014.12.2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정가수의매매 전자 예약거래시스템’ 오픈 예약거래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거래 가능」(2014.12.22.)

□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 시작

- [산업통상자원부, ‘마을단위 LPG 배관망 보급사업’] 완공식 개최, 12.26.]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연료비 부담이 많은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의 취사난방비 절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강원도 원주 황둔송계마을)

※ 농어촌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서 각 가정을 지하 배관으로 연결해 LPG를 도시가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향후 계획) 2015년 사업 대폭 확대*, 읍·면지역에 대한 LPG 배관망 구축추진 위해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타당성 연구조사”도 실시

※ 마을단위 사업비(국고): (2014) 27억 원(18개 마을) → (2015) 52.5(35)

※ 마을단위 사업 사업비(3억 원) 분담: 국고(50%), 지방비(40%), 마을주민(10%)

※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타당성 연구조사(3억 원)

자료 : YTN(2014.12.26.) / 머니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라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2014.12.27.)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_「이제 농어촌 주민들도 LPG를 도시가스처럼 쓴다. - 농어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저렴하고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이 대폭 향상된 LPG 공급」(2014.12.26.)

□ 산림청, 주요 임산물 산업발전대책 시행

- [주요 단기 소득 임산물(10개 품목*) 산업발전대책 시행, 12.22.]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15~2018년까지 4,200억 원 투입 예정

※ 밤, 뽕은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산나물류, 산지약용식물, 산양삼, 조경수, 분재

- (주요 내용) △생산기반 강화, △유통·가공 지원, △전문인력 확충 및 기술개발·보급, △소득안전망 구축, △수출 촉진

자료 : NEWSis-아시아투데이-이데일라파이낸셜뉴스(2014.12.23.) / 농수축산신문(2014.12.26.)

참고 : 산림청 보도자료_「한중 FTA를 청정 우리 임산물 수출 기회로 - 산림청, 2018년까지 4천 2백억 원 투입 유통구조개선, 수출촉진 -」(2014.12.22.)

㉔ 농정이슈

□ 농식품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 [미국 고병원성 AI 발생*(12.18.)] 미국산 가금류(닭, 오리 등) 및 가금제품(닭고기, 오리고기 등) 12.20.일자로 수입금지

※ 미국 농무성 동식물검역소(APHIS), 오레건주에 소재한 1개 농장(빨닭과 닭 100여 마리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8형) 확인되어 국제기구(OIE)에 통보

- (정부, 주의사항 및 협조 당부) 고병원성 AI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여행 시 가축 접촉 자제와 축산물의 국내 반입금지

자료 : SBS-YTN(2014.12.21.) / 동아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2014.12.22.) / 농민신문(2014.12.24.) / 농수축산신문(2014.12.2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농식품부,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 미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2014.12.21.)

□ 구제역(FMD) 및 AI 방역 추진계획

- [구제역 및 AI 발생 현황] △구제역: 충북 진천 양돈농장에서 발생(12.3.) 이후 진천 음성증평·청주천안 발생, △AI: 전남 영암나주 등(9.24.)에 이어 최근 전북 김제·경북 경주경남 양산 발생

- (방역 추진계획*) △구제역: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책임방역 시스템 구축, 백신 공급 및 점검·실태 매일 점검·확인 등, △AI: 야생동물 AI 검사 전문기관 설립(환경부, 2017.8.), 농가보상 현실화(친환경 축산 농가 등에 대해 실제가격 지원, AI 양성 농가 폐기사료 보상강화(40% → 80 등),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강화되도록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2015) 등

※ 정부, 제62회 국가정책조정회의(12.24.) 열고, ‘구제역·AI 현황 및 방역추진계획’ 논의·확정

- [국민안전처, 충남충북에 구제역 특별교부세 10억 긴급 지원, 12.25.] 소독 강화 등 구제역 차단 방역 강화 위한 조치

자료 : SBS-YTN·경향신문·국민일보·농민신문·세계일보·아시아경제·중앙일보·한국농어민신문·헤럴드경제(2014.12.22.) / 내일신문·동아일보·한겨레(2014.12.23.) / KBS·경향신문(2014.12.24.) / 국민일보·서울신문·아시아경제·연합뉴스(2014.12.25.) / 농축유통신문·NEWSis·연합뉴스·한국농업신문(2014.12.26.)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_「구제역 관련」(2014.12.19.-2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보도자료_「정부, 구제역 백신 공급·점검 실태 매일 점검」(2014.12.24.) / 국민안전처_「국민안전관리 일일 상황」(2014.12.25.)

정책브리핑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2014.12.22.)

□ 개요

-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12.2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적으로 구현, △글로벌 수준에 맞는 공공인적자원(노동·교육) 분야의 체질개선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조성, △금융·실물 분야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역동적인 혁신 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통해 경제활력 제고하여 **‘내수 수출 균형 경제’** 달성

□ 주요 내용

Ⅱ 2015년 경제정책 과제 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간접성) 재정지출의 원천 재검토와 교육교부금 선정기준 개선 추진, 국민연금 운용 체계 개편과 경쟁요소 강화 (효과성) 민자사업 대상 확대, 고유험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위험분담수익공유 방식 도입으로 민간투자 확대 (공공기관) 모든 기관의 기능조직 재설계,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유사중복기능 통합 추진
경쟁촉진,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실물로의 자금순환 촉진	(경쟁촉진) IT·금융융합(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보험증권사 업무 확대 등 칸막이 완화 (외환규제) 거래편의 제고 위해 외국환거래법령 전면 개편 (모험자본 등)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중소벤처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회수기회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FTA 등을 통한 생산인력 확충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 노사정위 논의 거쳐 추진 (생산인력 확충) 비자제도 개선·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으로 외국인력 유치, 여성 생활참가율 제고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 조기육성	(산학협력) 산업수요에 맞는 선도대학 모범사례 확산, 전문대 계약학과의 중장년층 ICL 확대 적용 (학교교육) 가톨릭대학교 도입 등 학제개편 검토(2015년부터 공론화)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경기회복 효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	재정 조기집행(58%),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용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충 등으로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소득)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연금금 통한 배당확대 등으로 소득증대 도모, 연금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해외진출과 직업훈련 강화로 청년고용률 제고 (생활물가) 추가교육비·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 유도 ※ (농업관련) 농수산물 관련 경영효율성 채널 신설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신성장동력) R&D 지원제도 혁신, 융합신제품 신속인증 통한 조기사업화 등 추진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산업별 애로해소 병행 추진, 노후산업의 스마트화 추진 (투자프로그램)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마련(産銀, 15조 원)하여 신성장주력산업 혁신 등에 30조 원 투자 유도 - 규제개혁, 시장경제 질서 확립, 외국인 투자 확대 추진, 해외진출 촉진과 중개서비스업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병행 ※ (농업관련)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등: 한중 FTA 타결 등 계기로 농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추진, 도농 간 격차 완화 - 우수 농수산업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투자 확대*, 기술금융지원 강화, 농어촌과 대기업 간 협력으로 유통판로 지원 확산** *농식품수출 모태자펀드 투자(누적, 억 원): (2014) 2,464 → (2015) 3,607 **대한상의 내 상생협력본부 통해 2015년 10건 목표(농식품 6건, 수산 4건) - 농업 6차 산업 집적화 단지(2014: 3개 → 2015: 6)-지역 컨소시엄(10 → 20) 등 인프라 확대, 수산업 6차 산업화 시범사업(5개소) 추진 - 농어촌 오지마을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와 농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 *농산물 가공시설 등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농지규제 합리적 개선(예: 실태조사 후 일부 농업진흥지역 보호정비)
민간주도 임대주택산업의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주거안정 도모	(규제개혁) 공공기관 보유 토지 적극 활용, 장기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택지건설 인센티브 제공 (금융세제지원) 주택금융 금융지원, 임대주택 리츠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등 (수요기반 확충) 장기 재무투자자 참여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등 공급 주택 다양화
[「리스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연착륙 유도 통한 리스크 완화	(구조개선)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여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연착륙 등) 가계부채 총량 및 자영업자 부채 체계적 관리, 상호금융의 건전성 강화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향상	(한계기업) 경기여건 악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 재무안정 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지원방안 마련 (일반기업)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M&A 세제 개선, 사업재편 시 절차 특례 등 지원(假稱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춘 대응력 향상과 인건비 마련	자본유출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한 후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 따라 기존 자본유입 완화장치 탄력 운용
[남북 간 신뢰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	
(남북경협) 역대 협력기반 마련 등으로 경협확대에 대비하고 남북관계 진전 시 본격적인 교류협력 추진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 성공적 개최,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 통한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 지원 - 교통·물류, 전력망 연계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본격화*, 기본계획 수립 등 DMZ계생태평화공원 초기 단계 사업 추진 ※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및 물동량 다변화 방안 검토, 다자간 협력 통한 전력 네트워크 및 산업단지 협력방안 검토 등
3통(통행·통산·통관)해결, 상사 중재제도 가동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 개척 지원	- 남북 간 신뢰형성과 비핵화 진전 시 개성공단 1단계 완료(국제화 포함),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등 남북협력 확대 (통일준비 역량강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준비가 될 수 있도록 통일준비 역량 배양 - 통일준비위원회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 주요국, 국제기구, NGO 등과 협력하여 북한 통계 확보, 북한 내 협력과제 발굴
(북한주민생활 지원)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 개성공단 내 모자보전 1,000일 패키지 사업(모성 및 영유아 영양간접개선 등)사업 실시 - 북한농촌단지 사업계획 마련, 산림현황 조사 및 양묘사업 실시 등 남북 간 농축산 및 산림 공동개발 협력기반 마련 -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미래행복통장제도의 안착,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고시

□ 개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고시, 12.24.] 농산물의 생산,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여건 등을 표준 규격에 적극 반영해, 품질고급화 및 유통활성화 등 적극 추진, 2015.1.1.부터 시행**
 -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유통 효율성 제고,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선별, 포장, 유통 시 필요한 규격기준에 대한 표준을 정한 것
 - ※※ 다만, 사과 표준거래단위 15kg 삭제는 기존 포장재 재고량 소모 등을 감안해 2015년 햅사과가 출시되기 시작하는 8.1.부터 적용
- (취 지) 핵가족화 등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점차 소포장 선호, 소포장이 농가 수취가격 향상에도 긍정적
- (기대효과)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소비활성화 유도,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농가 소득향상

□ 주요 개선 내용

- [포장규격 개선] 소포장 유통현실 반영 및 물류활성화 확대
 - 풋옥수수 20개 거래단위 추가(기존: 개수 30, 40, 50개 / 무게 8, 10, 15kg)
 - 사과 15kg 거래 단위 삭제(기존: 5, 7.5, 10, 15kg)
 - 투명소포장 범위 확대(2kg 미만 → 3kg 미만)
 - T-12형 팻릿*을 적재효율 90% 이상인 포장재 치수 사용 시 표준팻릿으로 사용 가능
 - ※ 기존, T11형(1,100×1,100mm) 1종에서 T12형(1,200×1,000mm)도 표준팻릿으로 추가됨 (기술표준원, 2013.12.18.).
- [등급규격 개선] 생산 현실에 맞는 등급규격 개정 및 신설
 - 매실 크기 구분에 지름기준 추가
 - 참외 신선도 기준을 꼭지 신선도에서 외피의 갈변화로 변경
 - 브로콜리 등급규격(특·상·보통) 신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4.12.26.)

연구지원 2014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자료 : 통계청(2014.12.22.)

□ 가을배추

- [생산량] 1,698천 톤, 전년(1,536천 톤)대비 10.6% ↑
 - (원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재배면적 소폭 증가(0.9%), 작황호조에 따른 10a당 생산량 증가(9.6%)
 - (지역별) 전남(488천 톤) > 충남(204천 톤) > 전북(191천 톤) 순
- [재배면적] 15,233ha, 전년(15,095ha)대비 0.9% ↑
 - (원인)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 ※ 2014년 배추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월별): (3월) 360 → (5월) 339 → (7월) 601 → (9월) 804원
- [10a당 생산량] 11,150kg, 전년(10,174kg)대비 9.6% ↑
 - (원인) 배추 정식기(8.하순-9.하순)에 일조시간 등 기상여건 양호하여 초기 생육 원활, 결구시기(10.~11.) 적절한 기온·강수량으로 전반적인 생육 양호

□ 가을무

- [생산량] 482천 톤, 전년(639천 톤)대비 24.5% ↓
 - (원인) 일조시간 등 기상여건 호조로 10a당 생산량이 증가(3.4%)하였으나, 전년의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감소(27.0%)
 - (지역별) 전북(123천 톤) > 경기(89천 톤) > 충남(85천 톤) 순
- [재배면적] 5,498ha, 전년(7,532ha)대비 27.0% ↓
 - (원인)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이 무의 소비부진과 겹쳐 약세가 이어지면서 가을무 재배면적 큰 폭으로 감소
 - ※ 가을무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매, 상품 1kg, 11~12월 평균): (2010) 1,058 → (2011) 328 → (2012) 757 → (2013) 468원(-289원, -38.2%)
- [10a당 생산량] 8,771kg, 전년(8,483kg)대비 3.4% ↑
 - (원인) 비대기(10~11월)에 강수량, 기온 등 기상여건 좋아 전년대비 개당 중량 증가

연구지원

콩

- [생산량] 139천 톤, 전년(154천 톤)대비 9.6% ↓
 - (지역별) 경북(26천 톤) > 충북(23천 톤) > 전남(16천 톤) 순
- [재배면적] 74,652ha, 전년(80,031ha)대비 6.7% ↓
 - (원인)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 높은 특용작물 등 대체 작물(참깨, 들깨 등) 전환
 - ※ 콩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품 1kg, 도매, 11~12월 평균): (2011) 5,450 → (2012) 6,058 → (2013) 4,894원(-1,164원, -19.2%)
- [10a당 생산량] 187kg, 전년(193kg)대비 3.1% ↓
 - (원인) 꽃이 피는 시기(7~8월)에 잦은 비로 저온 피해와 일조시간 부족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생육 부진

사과, 배

- [사과 생산량] 475천 톤, 전년(494천 톤)대비 3.8% ↓
 - (원인)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유휴지 전환, 폐원하는 농가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 소폭(-0.9%) 감소
 - (지역별) 경북(292천 톤) > 경남(63천 톤) > 충북(57천 톤) 순
 - (재배면적) 21,399ha, 전년(21,602ha)대비 0.9% ↓
 - (10a당 생산량) 2,218kg, 전년(2,285kg)대비 2.9% ↓
 - ※ 기상여건 호조로 낙과 피해는 없었으나 개화기 일부지역 냉해로 착과수 적어 감소
- [배 생산량] 303천 톤, 전년(282천 톤)대비 7.3% ↑
 - (원인) 농가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이 적은 매실, 복숭아 등 다른 과수로의 품종 전환 및 도시개발 편입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
 - (지역별) 전남(95천 톤) > 충남(58천 톤) > 경기(50천 톤) 순
 - (재배면적) 12,230ha, 전년(12,727ha)대비 3.9% ↓
 - (10a당 생산량) 2,475kg, 전년(2,217kg)대비 11.6% ↑
 - ※ 기상여건 호조로 냉해 등 피해 감소, 비대기에 기상호조에 따른 작황 좋아 생산량 증가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기획조정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